

 POSRI 보고서

터키 대선, 새로운 불안의 시발점 되나?

서상현 수석연구원, 경제·정보분석센터 (unisa21@posri.re.kr)

김영삼 수석연구원, 경제·정보분석센터 (youngsamkim@posri.re.kr)

[목 차]

1. 터키 대선, 에르도안 당선과 국내외 반응
2. 에르도안의 장기집권 시도와 국내외 반발
3. 터키 경제에 대한 영향
4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○ 지난 8월 10일 실시된 터키 대선에서 에르도안 전 총리 당선. 이로써 에르도안의 장기집권의 발판이 마련됨

- 대선 1차 선거에서 에르도안은 51.8%로 과반수를 넘어 강력한 야권 단일 후보였던 이흐산오울루를 눌렀음
- 8월 28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에르도안은 대선공약으로 현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이라고 공언함

☞ 터키는 의원내각제로 총리에게 실질 권한이 있음. 대통령 직접선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에르도안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기반 마련

○ 에르도안의 절대권력 확립을 위한 개헌 시도는 국내외적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

대내적	▪ 집권당 주요 인사 및 에르도안의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하여 국민들 불만이 증폭되는 등 국내 정치불안 가중 전망 - 지난해 연말의 도시 지역 중심 대규모 시위와 같은 국민의 저항 거세질 듯
대외적	▪ 주요 서방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성장의 어려움 예상 - 2011년 3연임 성공 이후 언론과 반정부 세력탄압과 히잡 착용 허용 등 이슬람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서방과의 관계 악화 - 이러한 에르도안의 조치에 맞서 독일·프랑스 등은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음 ▪ 주변국 이스라엘 및 이집트, 시리아와의 관계 지속 악화 전망

○ 에르도안의 장기집권 시도에 대한 국내외적 반발로 호전되던 터키의 경제 지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 높음

- 특히 서방과의 갈등으로 터키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EU가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

○ 대선결과 발표 이후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이 터키 경제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(8.11일)

- 당선 확정 직후인 8.11일 터키의 통화인 리라화 가치는 달러 대비 0.3% 하락한 2.1522리라에 거래됨(8.27일 기준 2.1623; 4.1일 이후 최고치)
- 터키 주식시장도 당선 직후인 8.11일, 전일 대비 2.1% 하락하며 최근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

○ 내년 5월 실시 예정인 터키 총선까지 터키의 정치, 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상됨

- 터키 정치 및 경제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, 외국인투자 감소와 이로 인한 환율 변동성 등도 예상됨
- 또한 단기적으로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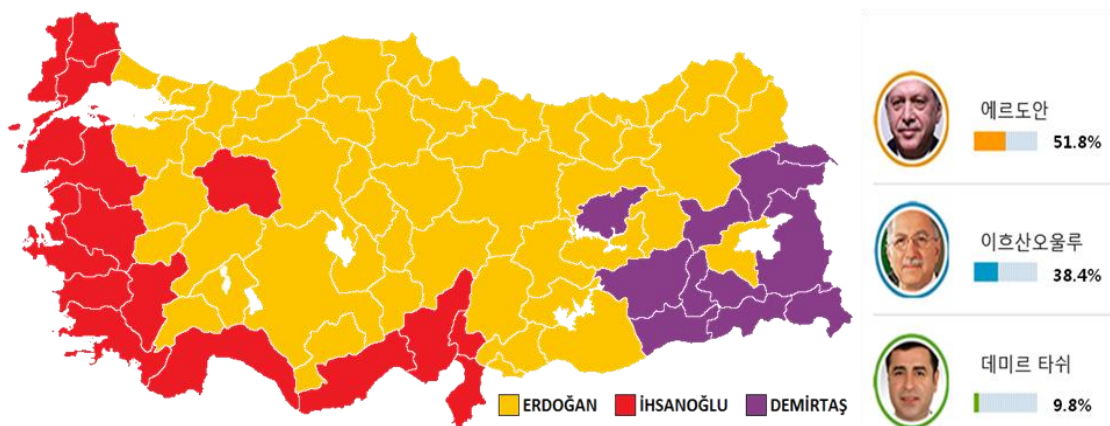
1. 터키 대선, 에르도안 당선과 국내외 반응

□ 2014년 8월 10일 치러진 대선에서 에르도안 총리가 51.8%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, 8월 28일 공식 취임

○ 이번 대선에서는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야권 단일후보 이흐산 오울루가 에르도안의 대항마로 나섰다나 역부족

- 에르도안 후보는 저소득층 · 무슬림 · 노동자 계층에서 강세였고, 이흐산 오울루는 중산층 및 도시지역에서 강세
- 사회주의 친쿠르드파 데미르타쉬는 주요 쿠르드족 거주지역에서 득표력을 내보이는데 그침

<터키 대선 득표 결과>



자료 : Anadolu Agency

<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평가>

- ✓ 1954년생으로 20대 시절부터 보수/종교적 정당에서 활동
- ✓ 에르도안은 2003년 집권 이후 11년간 평균 5%에 이르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
 - i) 반정부 시위에 공권력으로 대응('13년, 강경 대처로 수많은 사상자 발생),
 - ii) 인사문제에 대한 비난 고조(연고주의, 정실주의),
 - iii) SNS 차단 및 감청 테이프로 드러난 부정부패(집권당 및 아들의 부정부패),
 - iv) 이슬람화 및 보수화 추구(서방국가와의 갈등 촉발)
 - v) '14.3 월 지방선거의 부정투표 의혹 등으로 비난을 받음

○ 총리 재직시 각종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, 국민이 에르도안을 선택한 것은 그의 경제적 성과 때문

- 에르도안은 지난 11년 집권 기간 동안 물가를 안정시키고 교육 · 의료 등 복지 혜택 확대에 주력,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
-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세속주의를 약화시켜 지지층인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을 결집시킨 것도 승리 요인으로 작용

□ 에르도안 당선 이후 국내외적으로 그의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

- 서방언론의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에 대한 평가 중 하나는 ‘21세기 새로운 술탄의 탄생’, ‘터키의 푸틴’ 등 부정적 언급
 - 반대 언론을 탄압하고 부패 스캔들을 파헤친 경찰들을 대거 파면하거나 체포, 부정부패 연루 등 독재와 부패의 아이콘으로 부각시킴
 - 야권에서는 에르도안 총리의 대통령 출마에 대해 향후 10년간 독재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한바 있음
- ※의원내각제인 터키는 지난 2007년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으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음
- 실제로 에르도안의 대통령 출마는 집권당 정의개발당이 당규로 총리 연임을 3회로 제한해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임
 - 이는 러시아의 푸틴이 3선 연임 금지로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하자 총리로 재직 한 후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과 유사한 사례임

2. 에르도안의 장기집권 시도와 국내외 반발

□ 총리로 11년간 터키를 통치해 온 에르도안은 이번 대선 승리로 현행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헌법개정 추진

- 이는 대통령제를 통해 또 다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임
 - 그는 개헌 이전이라도 내각회의 주재권 등 현행 헌법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힘. 따라서 그의 당선은 곧 준(準)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의미
 - 이는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이름만 바뀔 뿐 ‘에르도안이 통치하는 터키’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름 아님
-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5월에 실시 예정인 총선에서 집권 정의개발당이 2/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함
 - 현재 313석으로 54석을 더 획득하면 정의개발당 단독으로 개헌 가능
 - 그러나 정의개발당의 2/3 의석 확보 가능성은 최근 도시지역에서의 낮은 지지율 등으로 회의적임

□ 만약 내년 총선을 통해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, 국내외적으로 많은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

-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연말의 도시 지역 중심의 대규모 시위와 같은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전망
 -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집권당 주요 인사 및 에르도안의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등 국내 정치불안 가중

- 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터키 경제화지수를 분석, 부패도에 44점(100점 만점)을 매기는 등 집권당의 부패 만연을 주목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걸림돌로 지적
 - 특히 부패, 정실인사, 연고주의 등 심각. 현 정권이 유지되면서 이 성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
- 대외적으로는 주요 서방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이 예상됨
 - 2011년 3연임 성공 이후 언론과 반정부 세력 탄압과 아울러 히잡착용 허용 등 이슬람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서방과의 관계 악화
 - 에르도안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음
- 주변국인 이스라엘 및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와의 관계도 지속 악화될 전망
 -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“이스라엘은 아돌프 히틀러보다 더 야만적이다”라고 비난
 - 중동지역 주요 동맹 국가였던 이집트와의 관계도 부정적. 이집트 군부의 쿠데타 이후 대사급에서 대리 대사급으로 외교의 격을 낮춤

3. 터키 경제에 대한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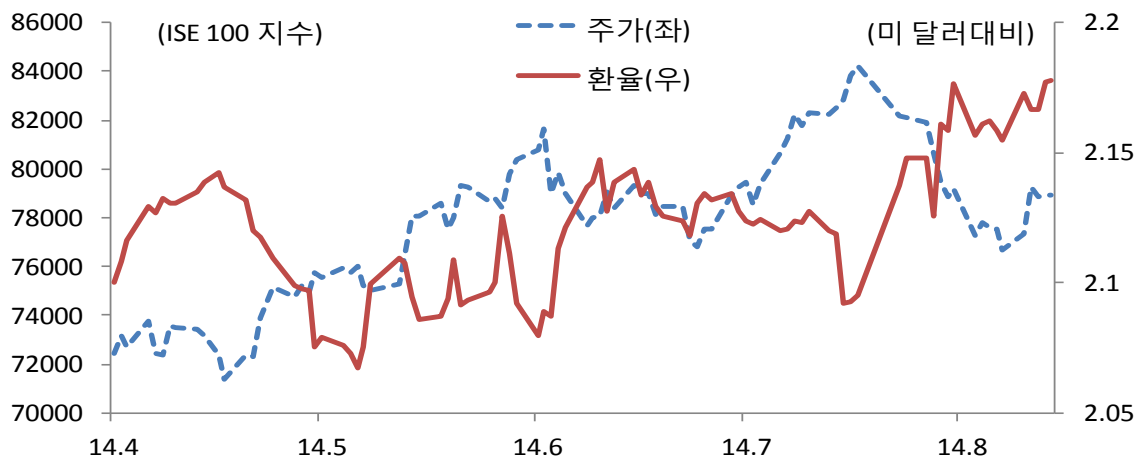
□ 향후 터키 경제는 내년 5월 실시 예정인 총선이 분수령 될 전망

- 총선을 통해 대통령제로 개헌시, 에르도안의 절대권력 강화로 국내외적으로 우호적인 여건 마련은 힘들 것으로 예상됨
 - 물론 에르도안이 대통령 당선연설에서 국민화해를 강조하였지만 이슬람주의 강화 및 부정부패 해결 의지 부재로 국민들 반발 부를 듯
- 특히 에르도안의 이슬람화 정책 강화는 서방국가들과 직접적 갈등으로 이어져 터키의 최우선 목표인 EU 가입 가능성이 희박짐. 또한 서방과의 무역 및 투자 등의 경제관계도 소원해질 것으로 전망됨
 - 국제금융연합회(IIF)의 르보미르 이코노미스트는 “유럽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터키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수출 전망 또한 회의적”이라고 평가
- 향후 터키경제는 신흥국 및 유럽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양호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. 하지만 정치 리스크 부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
 -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터키경제에 대한 비관론 대두는 터키경제 체질 악화보다는 에르도안이라는 절대권력 공고화가 리스크로 부각되기 때문임
 - 따라서 내년 5월 총선까지 터키 국내 정치, 경제 리스크 지속될 전망

□ 에르도안의 장기집권 시도에 대한 국내외적 반발로 호전되던 터키의 경제지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 높음

- '14년 1월, 터키는 '13년 말에 시작된 미국 Fed의 테이퍼링 본격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격감해 외환위기설에 휩싸였음
 - 그러나 선제적인 금리 인상, 선진국 경제의 회복 등으로 위기를 넘어섬. 이후,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 우려로 경제위기 다시 고조됨
- 특히 에르도안의 반서방정책은 '양날의 검'으로 작용할 우려 다분. 주요 지지층 결집 효과와 아울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옴
 - 이는 터키에 유입된 서방의 투자금이 빠져나갈 경우, 터키 경제가 급속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
 - 포린어페어스는 "각종 부패에도 경제적 이유로 에르도안을 지지해온 중산층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"며 "반서방 정책이야말로 에르도안의 취약점"이라고 분석함
- 서방과의 관계 악화로 터키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EU가입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
 - 지난해 6월 에르도안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강제 진압하자, 독일·프랑스 등은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음
- 대선결과 발표 이후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에 터키 경제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(8.11일)
 - 당선 확정 직후인 8.11일 터키의 통화인 리라화 가치는 달러 대비 0.3% 하락한 2.1522리라에 거래됨(8.27일 기준 2.1623; 4.1일 이후 최고치)
 - 터키 주식시장도 당선 직후인 8.11일, 전일 대비 2.1% 하락하며 최근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

<터키 주가(ISE 100 지수 및 환율(뉴리라)>



자료 : 국제금융센터

□ 비관론의 중심에는 에르도안 총리의 독재에 가까운 권력 장악과 이로 인한 정치 리스크 부각이 자리하고 있음

- 터키 대선결과에 대해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터키의 정치적 불안이 내년 6월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
 - 피치는 터키의 신용등급을 기존 'BBB'로 유지한다고 발표
 - 무디스는 '13.5월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등급인 B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으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음

<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터키 대선에 대한 평가>

피치	무디스
“정치적 리스크는 해외자금 유입 감소와 정책신뢰도 하락을 야기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깎눌 수 있다”고 경고(8.11일) - 통화정책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반정부 시위 등이 신용등급에 영향	“터키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”(8.15일) - 정치가 안정될 때까지 터키의 구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 전망 - 터키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% 보다 낮은 3%에 그칠 듯

4. 시사점

□ 내년 5월 실시 예정인 터키 총선까지 터키의 정치, 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상됨

- 주요 해외 신용기관들은 내년 5월 실시 예정인 터키 총선까지 터키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음
 -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에르도안의 권력강화 및 개헌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스탄불 등 대도시 중심으로 시위발생 가능성 높음
-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가능성 등이 높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
 - 최근 터키는 3개월 연속 금리를 인하(10%에서 8.25%로) 하였기 때문에 경제불안 요소 발생시 금리인상에 나설 여지 다분
 - 또한 국내정치 혼란으로 외국인투자 감소와 이로 인한 환율변동성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

[참고자료]

국제금융센터, <http://www.kcif.or.kr>

The Economist, "Turkey's presidential elections The next sultan?", Aug 16th 2014

한국 수출입은행, "터키 대선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", 2014.08.11